

**히브리서 서론**

- 누가, 어디서 기록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저작연대를 A.D. 64-67 년 사이로 추정한다.
-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박해와 고난도 이겼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유대교의 공세와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해져 가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

**I. 그리스도의 우월성(1-3장)**

1. 사실(Fact)	2. 의미(Meaning)	3. 적용(Appl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1-2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1:1-2).</li> <li>② 천사에게 아들이란 칭호를 주신 적이 없다 (5 절).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자들이다 (6 절).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다스릴 분이시다 (7 절).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섬기는 영이다 (14 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숭배하고 섬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천사가 아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약해져 가는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3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3:4).</li> <li>②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사용하셨다 (3:5).</li> <li>③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3:6).</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배교의 위험이 있다. 나의 생각에는 누구로,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가?</li> </ul>

**II.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4-10장)**

1. 사실(Fact)	2. 의미(Meaning)	3. 적용(Appl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만 죄가 없으시다 (4:15).</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는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9: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가는가?</li> </ul>

<p>②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4:16).</p> <p>③ 축복의 약속과 하나님 자신의 맹세가 영혼의 닳과 같아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6:13-20).</p> <p>④ 구약 모세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8:5).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9:22).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9:23-28).</p>	<p>●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있다. 그러나 죄는 그 길을 막는다. 죄를 해결하는 길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길은 오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9:12).</p>	<p>● 나에게 있어서 영혼의 닳은 무엇인가?</p>
--	--	-------------------------------

<b>Ⅲ.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13장)</b>		
<b>1. 사실(Fact)</b>	<b>2. 의미(Meaning)</b>	<b>3. 적용(Applicat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 (10:24-25).</li> <li>●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10:36).</li> <li>●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10:38).</li> <li>●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11:6).</li> <li>● 예수를 바라보아야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 (12:1-2).</li> <li>●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다 (12:8). 그러나 연단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온다 (12: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심히 모여 서로 격려하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전진이 있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다.</li> <li>● 성도의 삶은 믿음의 경주이다. 천국응원단 앞에서, 장애물을 벗고, 인내로 달리는 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팬데믹 중에 믿음이 더 자랐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갔는가?</li> <li>● 나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슬프게 하는가?</li> <li>● 나는 신앙의 경주자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우리 교회는 경주자가 많은 교회인가? 아니면 구경꾼이 많은 교회인가?</li> </ul>